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내면의 용광로에다 모든 것을 맡겨 보라

한마음의 눈빛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잊고저께 오며 가며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자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장애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면의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보라 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제 자리에서 돌려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그대로 팔자 운명으로 나온다면 심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겁니다. 그 입력받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장난이다.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다 이겁니다. 인과의 윤회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세균성, 열계성 이 문제도 모두가 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거기에서 되돌려 보아야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어디서 잘못했느냐, 어디서 잘못했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련 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허공을 아무리 허우적거리려도 그것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단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외국으로도 가게 되고 또는 한국에서도 대처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거를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거를 알아야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가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노인네다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노인네지 마음이 노인네가 아닙니다. 어련하고 어른이고, 젊었고 늙었고 간에 마음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났고 또 다시 나올 때에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하간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면 이를 그대로 받

죽으면 누가 맡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자들 낳으면 모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리면 그 모습만 갖다 버렸을 뿐이지 그 인과의 유전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대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 다음 대가 있고, 2대가 아니면 6대, 7대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더디 나오는 게 있고 이를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아이들 이 더러더러 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딴느냐 하면 과거에 인과로서의 유전이 된 그 자체가 바로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하나하나, 장애자들 낳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태고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들 잘 아시겠죠. 이 름으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 자체가 모두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예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병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러니 한두 건이 아닌, 참나할 나 용도가 바뀌면서 나뉘어서 다가오는 그 모두

습니다. 백 번을 반복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닿는데 왜 자기는 닿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업이 두꺼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 자체가 있다는 생각도 거기가 다 놔버려서 아주 맑게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나는 업이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안 될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이런 마음조차도 거기가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몸으로써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 속에서 그 광력이나 전력 지력 통신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입니까? 공기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공기중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물속에서 살듯이 말입니다. 물 바깥을 벗어나면 고기도 죽어요.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내면세계에서 벗어나면 이빨이 된 것이고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온 거나 진배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나뉘면서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염주를 들리는 겁니다.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도며, 그것이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제껴놓고 부처님 앞에, 불당에 가어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모두 이런 말을 했죠. 너부터 알라고요. 내가 태초요. 내가 바로 부처요. 내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모두 생긴 것이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너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셨 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죽어도 세상은 다 있고 사람들은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영원한 길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틀어 아닌

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신도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공부를 해나가면서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의 다섯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일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가 죽어도 꿈에 나타나다든지 마음과 마음으로 전갈이 되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그들의 전생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인생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 질기디 질긴 인연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사회적 으로 이 어린이 보도되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을 한뜻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을 내었지요. 그중에는 저와 같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법과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내었다고 보는데 공부를 한 자나 인연 없는 중생들 역시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들의 소식은 없는지요.

이 문제를 여러 법사님들께 여쭙어보아도 뚜렷하고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더군요. 큰스님 같이 위없는 법력을 가지신 분들이 마음만 내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는지요. 마음공부가 미혹한 저로서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서 스스로 깨치게 되길 기다려야 하는데 되지를 않는군요. 제 마음이 확 풀어지도록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스님: 이런 게 있죠. 과거에 판사가 판결을 냈 습니다. 판결을 냈는데 지금 그 판결은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에 판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판사가 해놓은 것은 그만한 엄연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도로 온 판사가 그것을 무죄로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죠.

예전에 못 먹고 주립 당시에 깨밭에 깻벌레를 강릉에다 주워서 모두 오줌통에다 넣어서 죽이고,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쪼 떼기를 산 채로 벗겨서 이렇게 모두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보니까 깻벌레나 개구리나 아주 은연중에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인간으로서 그 집 자식으로서 환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여보시오, 이리이러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아들 풀이 서당에 갔다 오기 전에 전부 칠사로 된 망으로 동그렇게 치고 거적을 쌓아놓고 거기다 깻벌을 해놓고 그러고서 독 안에 들어가서 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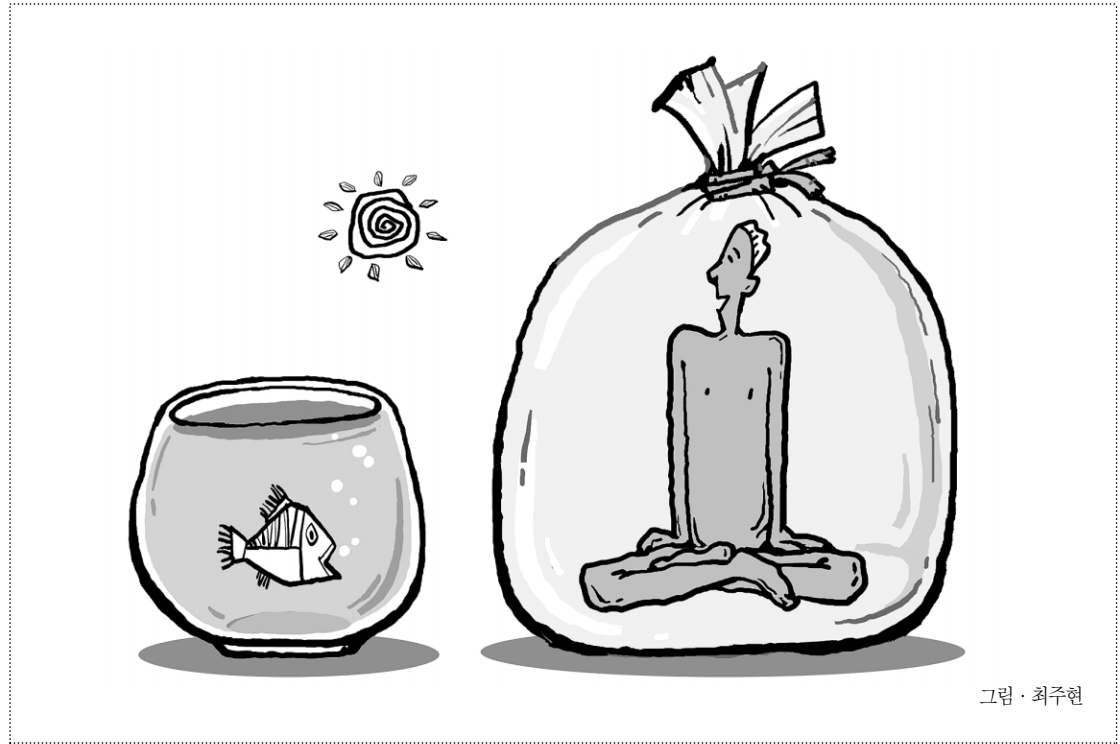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현이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학술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무슨 공자, 맹자 소리나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외로 꿰고 바로 꿰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현만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실현공행하는 것을 가르치셨지 말을 배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기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웬 줄 아십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자식들도 그렇고, 또 뼈와 살을 빌려서 낳아준 부모들도 그렇고, 역시 그 은혜를 백분지 일이라도 천분지일이라도 갚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생각 잘못해서 장애자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도 전부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장애자보다도 정신장애자가 모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자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기르다가 부모가

를 어떻게 타파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눌 게 아니죠.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하고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 바로 불바퀴에다 놓으면 그냥 타버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바퀴라고 하나만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명통(宿命通), 즉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대로 깨내서 쓸 수 있고, 입력한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입력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인생의 자유를 맛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수없이 그런 얘기를 반복했

니 죽겠네 살겠네 하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물이 아주 없으면 없는 대로 죽는 거고 그러니 사람과 물고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나가는 방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생명이 유지되니 감사해야 하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깐 감사해야 하고,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하니깐 감사하고, 또 땅을 걸어나다니고 땅에다 심어 먹어야 하니깐 감사하고 또는 독불장군이 없이 서로 공생하고 공용하니까, 공식하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길러줬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한데 합친 자체가 바로 이름해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그대로 생활입니다. 도(道)도 생활이요, 바로 부처도 생활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부처님 밭이고 이것은 부처님 밭이 아니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자식이나 남편을 다 체쳐놓고 그냥 염불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불을 할 때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염불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주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염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고 그 염주가 쉼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철두철미하게 인생의 자유를 맛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풀었다 놔다, 풀었다 놔다 한다면 그거는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주를 내면 속에 넣고

입력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까닭에 그대로 여여함이 돼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서 벽을 치면 붓장이 울러듯이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苦)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넣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용광로에 놔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그것이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서 아주 사그리 먹어치우고 어디로 갔어? 원수를 갚아야 할 텐데, 이놈들 어디로 갔어? 하곤 그냥 팔팔 뛰면서, 시간이 넘으면 이제는 인생으로서 잠깐 환생했던 것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절문자: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생활을 하게 돼

모든 것은 거기에다 되돌려놔야

29면에서 계속

없어질 텐데, 이 시간이 넘으면 안 될 텐데, 이놈들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필필 뛰더랍니다. 그리고는 영영 울면서 필필 뛰는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세상에 원수 같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소리가 잦아져 버립니다.

그때 떨리고 무서워서 독 속에서 서너 시간 있다 나와 보니까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개구리고 그냥 얼기설기한 그 외에 붙어서 죽어가면서 꿈틀거리는데 자기가 죽인 만큼 수효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 외에 딱 찢어놓았습니다. 한 바가지씩 잡아다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세월이 그래서 그랬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게 해서 나와 보니까 너무나 떨리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어떤 생명든지 이제 죽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부부는 절간으로 올라가서 자식들이 그렇게 원수로 태어난 것을 빌어주면서 그 개구리나 깻벌레가 인도 환생을 해서 잘 살게 천도를 해달라고 공양주 노릇을 하고 부목 노릇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만 마리를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되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잡아먹는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다가 놓으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마리가 바로 원자에서 입자가 났다가 입자가 원자로 들면은 하나가 되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빗방울이 떨어졌어도 골짜기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지는 물이 그렇게 수효가 많아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진정코 제자리에서 되돌아만이 인도환생을 하면서 천도가 되면서, 자기 업보가 없어지면서 그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KBS홀에서 펴고 오늘 두번째로 친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대중 앞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자주는 못 들지만 기회 나는 대로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재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재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전생에 제가 어떤 업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여쭙며, 내세에 또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좋은 법문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지껏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문자: 예.
▲스님: 그래서 '공(空)이다 색(色)이다' 하는 게 틀이 아닌 까닭이 아니라,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고가 붙을 자리도 없느니라. 모두가 찢아찢나 화해서 돌아가는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반야심경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습에 의해서 '나는 이런 병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또 인간이라면 업보가 있다. 업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모두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하게끔 끌고가려무나.'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몸과 정신과 마음내는 거와 법이 틀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법신과 화신이 틀이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몸뚱이, 네 시지를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야지 누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 하고 거기다가 바로 놓는 것

려 놓는 거기에서만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네 몸뚱이 네가 고쳐서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거기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 물러섭니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게 뭐 어디 있어?' 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자로 믿고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병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네 몸뚱이 내가 안 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라.' 하고 놓는다면 아마 체험을 하시 겁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의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입선이니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냥 참선입니다. 그렇게 물러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물러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러면 몸도 건강해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좋죠.

네가 텍초요 네가 비로 부처요 네가 있으니 이 지체가 모두 생긴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유마힐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란안을 갔을 때 "나는 중생들이 다 나야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인 이 소 우주 소 육성한테서 발견을 해보십시오. 내 몸뚱이 속에 수심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누구 이겠습니까? 즉 자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뚱이 속에 들은 거와 자기 몸뚱이를 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한 몸뚱이입니다. 장 공장에서 파워를 일으키면 전체 공장이 쪼러집니다. 전체 공장이 쪼러지면 사람이 쪼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자: 예.
▲스님: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 하면 색(色)과 공(空)이 틀이 아닌 그 모두를 한꺼번에 바로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되돌

▲질문자: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관(觀)하는 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대로 느낀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인공을 믿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몸에 병이 아니라 단지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예는 저로서는 수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욕심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는 지를 거의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 미혹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 상태를 밝은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나쁜 사탄 길로 가지 않게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을 관해서 경성하여 올바른 가는 수행법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스님: '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놔여지.' 하는 것까지도 거기 놔여 합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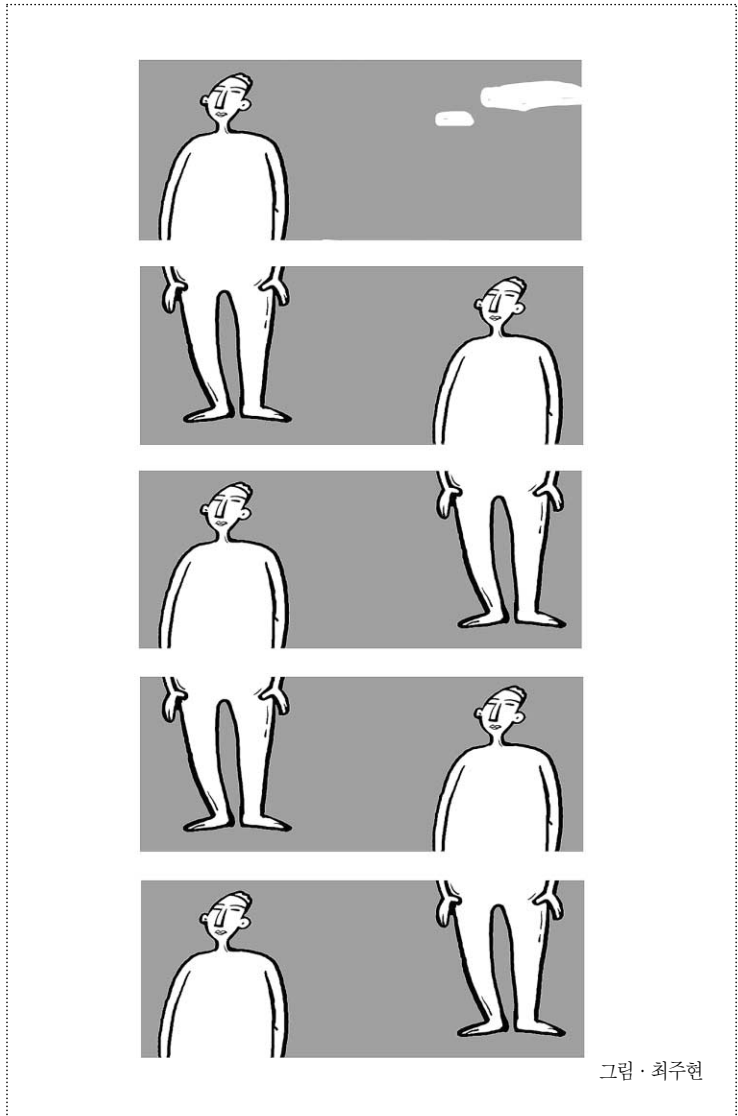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놓는 거 안 놓는다. 뭐 안되는 것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붙지 않습니다. 24시간 생각이 안 났어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틀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탄지란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붙들고 극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극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자리에서 되돌려놓는 공부, 또는 제자리에서 놓되 앉으나 서나 생각하면 거기다 물러놓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안되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다 물러놓는 법, 또는 경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틀 아닌 도리를 공부하려면 이것저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운동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경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틀이 아닌 도리를 알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보이고 '나는 아무 게다.'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것을 속아서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제자리에다가 다시 물러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칠겠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ngsa.org.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당 하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어은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 복용 1달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 이온성 일카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고혈압, 경정기용합중증, 류마티스, 신경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폐렴,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사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이드름, 건선, 백반증, 백혈반, 비만, 구상체암, 저조농부, 삼근병 번비 등) 한병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계좌번호: 국민은행 084-21-0800-172(예금주: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080-521-6666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신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임산부에게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족의화학자 권재우 홍(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